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

22003262 이동욱

* 간도의 정의와 역사

간도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의 영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이 되었습니다. 간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국경관리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지역 일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봉금정책을 펼치면서 이 지역은 약 150년간 무인지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사회에 흉년이 들면서 우리 선조들이 개간을 통하여 이 지역을 다시 선점하게 되었고 조선의 영토로서 인식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본래 간도는 고대 북옥저, 백산말갈을 복속한 고구려, 발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후기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 마저도 조선초기 세종대왕 집권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귀화시켜 4군과 6진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기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청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로 정하여 만주족이 아닌 타민족의 거주와 개간, 삼림 벌채, 인삼 채취등을 모두 엄금하였습니다.

* 간도가 중국의 영토가 된 이유

간도에는 대부분 조선인들이 거주하였지만 여진족들도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되면서 간도지역을 봉금지로 설정하면서 조선인들을 비롯한 타민족들의 거주등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청나라가 봉금지역을 폐지하고 간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공고문을 보고선 조선조정에 요청하여 1885년과 1887년에 간도에 관한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전쟁이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중국에게 임의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넘어간 간도는 중국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1962년 북한과 중국의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되며 완전한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

* 백두산 정계비

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백두산 정계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1931년 7월에 사라져 지금은 돌무더기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비는 백두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세워진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표시하는 경계를 위한 비석입니다. 간도지역을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실효적 지배를 통하여 선점하게 되자 봉금지대가 해제되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청에서는 목극동을 파견하여 조선과 합의를 하여 백두산에 새로운 국경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사실 조선은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조변책 선을 서측 경계로 하였는데 백두산정계비에서는 서측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게 되므로 경계가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서간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두산정계비의 주요 골자는 ‘동위토문, 서위압록(西爲鴨綠, 東爲土門)’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의 내용인데 여기서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조선은 국경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동위토문(東爲土門)에서 토문강은 백두산의 동측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건천입니다. 이 토문강은 청나라 지도에도 나오는 실제 있는 강으로 이는 송화강의 지류입니다. 토문강은 송화강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연해주를 거쳐 동해 바다로 나가게 되어 우리는 지금도 이를 청나라와 경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토문강을 도문으로 해석을 하고 도문은 두만강이라고 해석하여 두만강이 경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양국 간에 영토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영토문제에 양국 간 이견이 있자 중국 측의 제의에 의하여 감계담판(영토담판)을 갖게 되었는데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 두 차례의 감계회담이 있었습니다. 1차 감계회담(1885년)은 백두산정계비에 써진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습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은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山頂)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紅土水)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삼지연에서 흘러나오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紅丹水)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습니다. 결과는 이 회담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 결렬되었습니다.

* **일본에 의한 간도협약**
이후 청나라와 감계회담을 통하여 국경을 정립 하여야 하는데,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청간의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을 일본이 갖고 대신 조선의 간도 지역 관할권을 청에게 넘긴다는 협약입니다.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인데요. 우선하여 고종의 직인이 없는 을사늑약이 무효인데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대리권한을 갖은 것을 빌미로 우리의 영토를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은 것입니다.
을사늑약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토를 할양하거나 우리영토를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간도 협약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자국의 광산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등을 주면서 간도의 관할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 간도협약으로 인하여 제3차 감계담판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경문제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남북이 갈라지는 문제로 우리와는 국경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국경문제를 논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 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

간도는 우리 선조들이 개간을 한 분명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 당시는 무주지로서 선점을 통해 영토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개간을 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게서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증거나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에 간도를 되찾는다 해도 간도는 북한의 땅이기 때문에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도를 되찾기 위한 방안의 첫번째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나서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통일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국민들이 간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독도영토학 수업을 듣기 전까지 간도나 녹둔도의 존재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영토학 수업을 들으며 간도에 대하여 알게 되고, 간도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국의 땅이 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간도를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허나 나라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 정부가 과연 다른 나라와 담판을 지으면서 땅을 되찾고 싶어할까요?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듯이 국민들이 먼저 간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국민들이 간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찾은 방안은 중국의 분열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통일의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문제와 자본주의를 통한 빈부 격차 등으로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소련의 붕괴를 보았으면서 동유럽의 민족단위의 분열 현상을 통한 국가분열과 국가분리를 역사를 통하여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본다면 중국은 민족단위로 분열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아직 진행 중인 영토의 국경회담을 통하여 자연스레 영토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의 민족분열은 심각한 상태로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영유권 시효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으나 중국의 편입은 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종교적 문제로 신장위그루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티베트도 민족주의를 앞세워 분리 독립을 요구하여 민족과 종교 단위의 분열은 자명해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구소련과 같이 민족단위로 분열이 된다면 한족과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중에서 모국이 있는 민족은 몽고족과 조선족입니다. 따라서 모국이 있는 소수민족은 단연히 분리 독립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연스레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미래일보 기사

<http://www.hkmd.kr/mobile/article.html?no=3983>

위키트리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